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한다.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 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은 형제·자매의 관계를 갖고, 그들이 결혼하면 아들 편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와 손자·손녀를 낳고, 딸 편으로는 사위를 맞아 외손자·외손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입양을 통해 혈연과는 관계없이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되기도 한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먼저 가정의 화목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성서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며,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서로 화합하여 온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하여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였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하여야 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첫째, 관심 또는 배려를 갖는 것, 둘째,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 존중하는 것, 넷째, 이해하는 것, 다섯째,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랑은 상대방을 염려하는 것이요, 책임을 지는 것이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이해하는 것이요 또한 없애 이 주는 것(희생·봉사)이다.

인생의 현장 제일 첫머리에 가장 큰 글자를 써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인생에 그윽한 향기를 부여하고, 삶 재미와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랑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화초와 햇빛과의 관계와 같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화초

가 시들어 버리듯이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여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불효한 자식은 못된 자식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탈린 인간이다.

부모공경 즉 효도에는 장수의 축복이 상급으로 첨부되어 있다. 효자와 효녀는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씀이다. 그 까닭은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중개자이고 통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부관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꺾이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 하느니라". 즉 부부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상화 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를 정상화 하여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수필

섬진강을 건너면서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진주에서 하동까지 남해 산업 도로를 달려본다면 왼편은 남해의 다도해가 펼쳐지고 오른편은 낮은 산골짜기로 눈과 발이 이어진다.

산업 개발이 되기 수십년 전에는 비포장도로로 먼지를 날리며 차창 속으로 모래가 날아들었다.

도로에 접한 면소재지 길가 가게에서 나그네를 위한 먹거리는 돼지고기 삶은 것과 왕소금에 막걸리 한사발이 고작이었다.

한참을 쉬어 가는대는 이곳만 한 곳도 없다.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다음 여정을 떠나는 것이었다. 지금은 전 국토가 도로 포장이 되고 국민 관광지로 된 듯한 감이 있으나, 그때에는 그저 차가 한가한 시골 도로 이면서 이름난 명승지 뿐이었다.

진주에서 하동쪽으로 접어들어 하동군 화개면 도로에서 8킬로 떨어진 쌍계사 십리 벚꽃길과 오른쪽 산비탈 구릉지대를 바라볼 수 있다.

쌍계사는 일명 옥천사라고 불리워졌고 신라 성덕왕 22년(서기 723년)에 고승 삼법이 창건하여 서기 840년에 혜조가 중건 하였다고 전한다.

쌍계사 일주문을 지나면 경내에 금강원 대웅전 나한전 팔상전 명부전 천왕문이 있고 마애여래좌상(1.35미터)이 있으며 탑은 당나라 육조 혜능의 두상을 봉안 했다는 금당에 건립 되었다.

그리고 주변에 불일암과 불일폭포를

찾아 시원함을 맛 볼 수 있다.

쌍계사 계곡은 지리산의 남쪽자락이기 때문에 심산 계곡 답게 소나무와 산수유나무 도로리나무와 머루 대레 덩굴이 우거져있다.

현재의 절 진입로는 아스팔트로 잘 정비 되어 있고 벚꽃나무 가로수는 봄철에 활짝피는 벚꽃으로 장관을 이룬다.

하동땅에서 서쪽 구례땅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경남 지역과 전남 지역을 연결하는 섬진강대교에 도달 할 수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지리산 자락을 돌아 남해의 광양만에 유유히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긴 강이며 그 길이가 212.3킬로미터에 달하며 유역면적이 4,896.5제곱킬로미터 된다.

섬진강의 양안을 거슬러 올라 가며는 풍요로운 산촌과 농촌 들안이 이어지며 상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이 1965년에 완공되었다. 댐높이는 64미터이고 발전 용량은 3만 킬로와트 이상되며 섬진강 하류지역과 계화도 간척지 등에 관계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섬진강 하류지역의 양안은 자갈과 모

래사장이 있고 상류일수록 바위들이 많은 석전이 된다.

강 하류에는 참계, 재첩, 조개 등이 강에서만 사는 벚굴이 있고 봉장어, 자라, 새우, 은어 등이 있으며 상류에는 버들치, 다슬기, 우렁이, 도롱뇽 등이 서식한다.

멀리 떨어진 팔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는 이곳의 재첩국을 먹어 볼만하다. 섬진강은 섬진대교가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다. 대교에서 바라보는 섬진강의 모래사장은 노송과 더불어 지난세월을 말하여 주는 듯 낙나 장송의 풍치를 자랑한다.

그러나 강 하류는 수량감소로 광양만의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와서 적조 현상을 초래하였고 재첩 등을 남획하여 자연 자원을 훼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류로 올라가면 매실마을이 있고 매년 봄철에는 매화 매실 축제가 열리며 화계장터에서는 하동사람 구례사람들이 모이는 민속 장터와 화계 은천 리조트 고소성 공원들이 버스이용 관광지로 꼭 들리는 곳이다.

또한 KBS 드라마로 고 박경리 작가의 "토지"소설의 주 무대가 된 평사리 최 참판댁의 집성촌을 많은 예산을 들여 민속마을로 건설 조성하여 놓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는 고 박경리 작가가 지나다가 조선조의 개국공신 조준(서기 1346-1406)의 광대한 저택을 보고 일제 말에 몰락되어 가는 양반계급의 흥망성쇠를 "토지"의 배경구상을 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오늘 섬진강 다리를 건너면서 서부 경남 지역과 전라남도 해안 내륙지방을 통과하면서 섬진강의 추억에 젖어본다.



권기을 안동교육장 취임



안동 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안동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홍광중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안동시 관내 초·중·고 교장, 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4대 권기을 안동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권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안동교육을 경북교육을 선도하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을 끌어내는 일에 구심점 모두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특히 조직능력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주문했다.

안동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홍광중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안동시 관내 초·중·고 교장, 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4대 권기을 안동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권 교육장은 취임사에서 안동교육을 경북교육을 선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 당선



前 정 조 공 과 총회장이며 현 고 문 인 권 기 만 씨 의 동 생 인 權 奇 奉(권기봉, 50세, 안동, 정 조공과 3610)씨가 지난 3월 15일 제 14대 남안동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했다.

씨는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 3월 남부농협 이사로 발령되어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4-11본부 감

사, (사)한국농업경영인 안동시연합회 남후면회장, 안동 암산농촌진흥센터마을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가족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역발전전에 기여했으며 법무부장관상, 우수논문 학술상, 글로벌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권혁세 기자>

권영창 의성군청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권영창(權寧昌, 의성출신, 북야공과 341)씨가 지난 2월 8일 의성군청의 지방서기관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승진되었다.

2006년 5월 7일 의성청년회(회장 권용규)에서 주관한 제 18회 전국 안동권서청·장년체육대회에 사무국장으로 진력하기도 했다.

현재 의성중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씨는 명석한 두뇌를 소지하고 취미는 등산, 골프, 색소폰연주이다. 김선주(경주김씨)여사 사이에 남매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권혁세 기자>

權純棼씨 자동차공학박사 학위 취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權純棼(권순오, 37, 안동 부정공과 371)씨가 지난 2월 18일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자동차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교, 경일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001년 미국 유니버시티대 교환학생을 다녀와 2003년 2월 창원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이어서 창원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박사 과정을 거쳐 한양대 대학원에서 올해 자동차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장래가 촉망되고 있다. <권혁세 기자>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 신발업체 아시아 석권

아시아 아웃도어 신발 시장 1위는 국내 업체인 트렉스타다. 1988년 부산에서 설립된 트렉스타는 20여 년 만에 아시아 시장을 석권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선 아직 이름이 나 있지 않다. 유럽의 스포츠미디어그룹인 이디엠(EDM)이 발표하는 세계 시장 순위로는 16위다.

권동철 대표(예천)는 "앞으로 5년 뒤인 2016년까지 세계 아웃도어 신발 시장에서 1위 업체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 이 거창한 계획의 토대는 기술력이다. 권 대표는 이날 "세계 최초로 200g짜리 경량 등산화를 만들고 48시간 안에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가 내세운 비밀병기는 신발을 실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드는 '네스핏(Nest Fit)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은 신발을 만들 때 쓰는 형(足形)틀에 있다. 일반 족형틀이 매끄러운 발 모양이라면, 네스핏용 족형틀은 발바닥과 발등·발가락 부위 등에 굴곡이

들어 있다. 권 대표는 "약 2만 명의 발을 3D(3차원) 스캐닝한 뒤 분석해 발에 있는 226개 뼈와 33개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고선 굴곡의 표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스핏 기술을 적용한 신발은 다른 제품에 비해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23% 적어 근육의 피로도가 31% 줄어든다고 한다.

네스핏 기술을 적용해 만든 신발은 지난해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경영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포스페인 ABC뉴스가 선정하는 '최고 아웃도어 신발 톱10'에 나이키 등과 함께 선정됐다. 사실 트렉스타는 신발 시장에서는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트렉스타 측은 암벽화선들·캠포트화 등 58종의 신발을 새로 선보였다. 그는 "신고 벗을 때 손을 쓸 필요가 없는 신발,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해 주는 신발,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신발 등 다양한 기능화가 출시 예정이며 최첨단 우주화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중수출액

의 절반가량을 수출 관로 확대와 디자인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렉스타는 현재 일본·미국·독일·칠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20개국에 신발을 수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사 기억 기능을 갖춘 특수 섬유로 만든 셔츠 등 첨단 의류 제품도 소개됐다.

아웃도어 신발뿐 아니라 의류 부문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몸의 움직임에 따라 간편하게 허리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장착된 바지와 등관에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부착한 야간산행용 재킷도 내놓았다.

◆트렉스타는 =아웃도어 신발 시장 세계 2위인 미국 하이텍 스포츠의 한국 지사를 운영하던 권동철 대표가 1988년 설립했다. 하이텍 스포츠가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긴 계기가 됐다. 글로벌 아웃도어 회사인 살로몬과 K2에 등산화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제조·공급하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 20여 년 만에 해외 20개국에 아웃도어 신발을 수출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중앙일보 2011. 4. 8 정선인 기자 인용

탄생!! 프리미엄 소형세단 엑센트



현대자동차 CarMaster

(100-420)서울 중구 무학동 1번지(상민빌딩 1~2층)
 신당지점 : (02)2253-2033
 FAX:(02)2237-2595

과장 **權赫先** (이천·북야공과, 36세)
011-222-6766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나결혼정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재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1번 출구)

소장 **권경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인제대 현영하머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지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

바로잡음

본지(2011.4.1, 4월호) 3면 안동시, "고창전직지 공원화사업" 제하에 2행, 후백제 왕건을 물리치고로, 7면 '성원에 감사합니다'에 스킨우(도봉)을 '권용우(도봉)'으로 각 바로잡습니다.